



2023. 1. 19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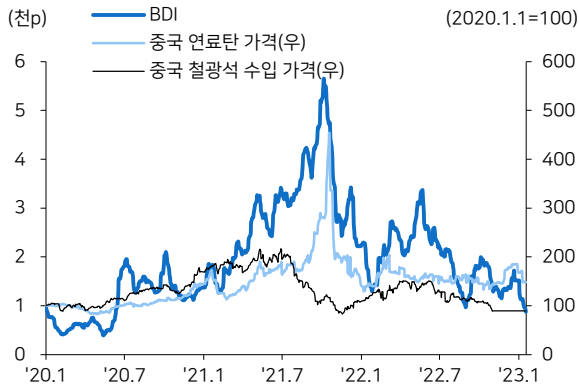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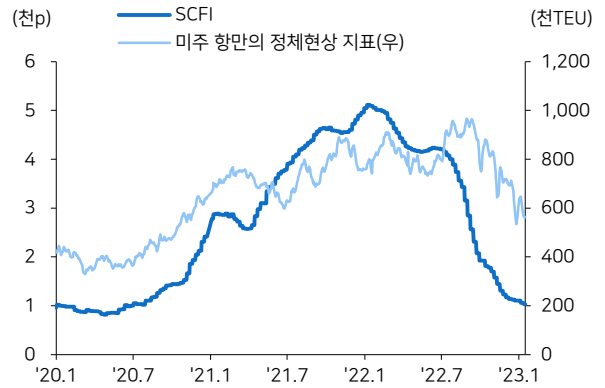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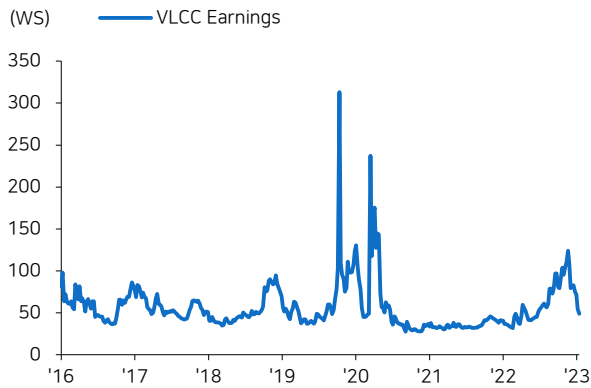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874.0p(-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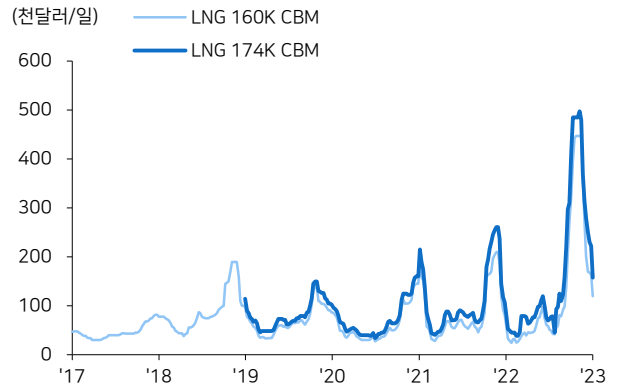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31.4p(-29.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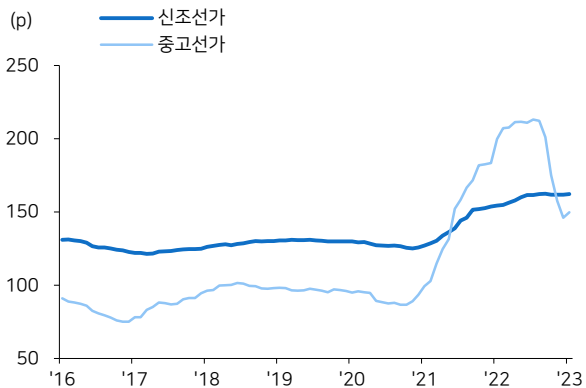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9.0p(-5.8p WoW)



LNG Spot 운임 93.8p(-26.3p WoW)
127.5p(-3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4p(+0.2p WoW)
150.1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57.6p(-)
104.1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티웨이항공, 차세대 · 친환경 항공기 B737-8 도입

티웨이항공이 B737-8 기종을 도입했다고 보도됨. 좌석 수는 B737-800과 동일한 189석으로 경량형 시트를 장착했다고 알려짐. 최대 운항거리는 기존 운용 중인 기종과 동일한 좌석 수로 비교했을 때 1,000km 이상 길어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언급됨. (뉴시스)

대우조선 "한화가 LNG선 2척 계약 보류, 사실 무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계약들을 재검토하며 이미 체결된 LNG선 2척 계약을 '보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됨. 한화그룹은 아직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한 것이 아니기에 대우조선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LNG선 계약은 아직 체결된 적이 없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파이낸셜뉴스)

Evangelos Marinakis' Capital Gas bumps up LNG fleet with fresh orders and secondhand buy

Capital Gas가 LNG선 2척 신규 발주 및 선령 21년의 중고선을 매입하며 운영선대를 18척까지 확대했다고 보도됨. 신규 발주한 건은 현대중공업에 174,000CBM급 LNG선박으로 2026년 3분기 인도예정이라고 알려짐. 옵션분으로 선가는 약 2.5억달러에 계약했다고 언급됨. 한편, 중고선박은 2002년 건조된 137,489CBM급 멤브레인타입 LNG선으로 약 3,50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ines to axe one quarter of Asia-Europe sailings as demand slumps

임시결항(Blank sailing)이 아시아-북유럽 항로 컨테이너 운임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됨. 3대 선사 얼라이언스는 2023년 첫 7주간 기존 스케줄에서 약 27%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짐. 2월 17일까지 기존 196개 중 53개 스케줄이 취소되었다고 언급됨. 지난 11월 아시아-유럽 물동량도 18.4% 하락한 바 있음. 한편, 공급 축소로 상하이-북유럽 Spot운임은 1월 17일 전주대비 25% 상승했다고 알려짐. 12월 중순 대비 60% 높은 수준인데, 이에 선사들은 공급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Canada: Equinor launches critical Bay du Nord bid process

Equinor가 94억달러규모 Bay du Nord 프로젝트에서 FPSO engineering 계약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Bay du Nord 유전은 2028~29년 첫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2023년 2분기 입찰 결과를 발표하고, 10~12개월간 FEED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한편, 지난달 FPSO hull과 선실의 FEED 및 세부 EPC 입찰이 시작됐는데, EoI(의향서)는 지난주 공개되었고 1월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할 것으로 언급됨. (Upstream)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곤지암 물류센터 구축...AI 물류 솔루션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Si기반 물류 생태계 플랫폼 'Kakao i LaaS' 기반의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AI 물류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됨. 물류자동화 토탈 솔루션 기업 아세테크와 'Kakao i LaaS LAB 곤지암'을 구축한다고 알려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연면적 1,560평에 이른다고 알려짐. (아시아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